

고독과 절망의 역학

-Hawthorne문학에 나타난 암흑성의 해부-

김 영 철*

目 次

I. 서 언	V. 절망의 원리
II. 암흑성의 정의	VI. 수난의 연금술
III. 현시적 질서의 한계	VII. 결 어
IV. 고독의 역학	

I. 서 언

Hawthorne의 도덕적 기상도를 설정함에 있어 먼저 일광영역의 윤리적 함축성을 고려할 수 있다. Hawthorne의 심상에 비친 일광의 기능을 나타내는 세가지 두드러진 형태들, 곧 자연, 인본주의 및 청교주의의 그것이다. 우리의 결론은 이들 이념들의 긍정적 덕성에도 불구하고 인간 영혼의 종교적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모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인간이 처한 도덕적 황무지를 통해 그를 인도하기엔 충족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 Hawthorne의 도덕세계의 개관에서 암흑이 끝없이 뻗어가는 심연들을 감싸고 있는 여백의 주위라는 비교적 제한된 공간이 일광의 몫으로 주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Hawthorne의 일광에 쏟는 관심의 양은 낭비적

* 人文大 英語英文學科 教授.

이며 균형을 잃은 감이 없지 않다.¹⁾ 그러나 과거가 Hawthorne의 주된 관심인 현재의 초석인 것 처럼 일광의 지식은 암흑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사실상 우리가 주지하는 바대로 여러형태로 제시된 일광의 불적격성은 Hawthorne에 있어 일관된 주제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제한성에 대한 그의 꾸준한 강조에 의해 우리는 인간미완성의 근원을 규명하기 위해, 또한 희망없음을 인식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암흑의 영역으로의 여행을 할 필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²⁾

일광의 영역으로부터 암흑의 옥지로 옮겨가는 것은 Hawthorne의 본질적으로 내성적인 성격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의 견해로는 비록 인간 영혼의 내적 현실에 대한 흑흑의 접촉점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연과 인본주의 그리고 청교주의는 근본적으로 내적인 문제에 대한 다분히 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내부적 문제는 Bunyan의 *Philgrim's Progress*에서 현시된 것처럼 영적 순례를 통해서 만이 효율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다. 자연물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관심을 기울인 심각한 사상가나 시인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세기초의 지적 환경을 형성했던 주세력이었던 Rousseau나 Wordsworth같은 낭만적 작가들이 인간의 원형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선하고 순결한 것으로 상정했다는 것은 Hawthorne의 기본적 좌표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것이다. Hawthorne은 인간의 내적세계를 공포의 감정으로 보았으며 그 암흑의 채색을 인간현실의 가장 정확한 지표로 확인했다. *The Power of Blackness*에서 Harry Levin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 1) 이 현상의 두드러진 예는 「Young Goodman Brown」, 「Rappaccini's Daughter」와 「My Kinsman, Major Molineux」이다.
 - 2) 저명한 두 Hawthorne 학자들이 암흑으로의 역정의 모티프를 다루고 있다. Rudolphe Von Abele는 「*The Scarlet Letter: A Reading*,」 *Accent*, XI (Autumn, 1951), pp. 21-227」에서 그것을 신의 은총으로부터의 인간의 타락과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에 대한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Darrel Able은 「Hawthorne's Dimmesdale: Fugitive from Wrath,」 *Nineteenth-Century Fiction*, XI (Sept., 1956), pp. 81-105」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The account of Dimmesdale's regeneration faithfully follows orthodox Puritan conceptions in its specification of the sinner's state before regeneration, of the stages in the actual process of regeneration, and the attitudes invoked toward regeneration." (p.99) 여기에서 나의 견해가 Abele의 것보다 Able의 것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How is it that--for the thinking man, *Il Penseroso*--black is "wisdom's hue"?
 This takes us back to the very beginning of things, the primal darkness, the void that God shaped by creating light and dividing night from day. That division underlies the imagery of the Bible from Gnesis to the Apocalypse, and from the world of life to the shadow of death.³⁾

다시말해 Hawthorne은 각처에서 인간성이 피우는 악의 꽃들에 직면하며 이 현실이 인간의 무엇인가 엄청나게 그릇된 것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의 가장 특징적인 수법은 이 불길하게 보이는 꽃들을 잠시 체쳐놓고 인간정념의 검은 신비속에서 발견되리라 믿었던 부패의 뿌리를 찾는 일이었다. sin, isolation, suffering같은 몇몇 원천적 단어들 중에서 선택할 입장에 놓일 때 Hawthorne의 상상력에 핵을 꿰뚫을 만큼 강력하며, 또한 그의 소설에 주된 의미를 거의 포괄할 수 있을 만큼 폭넓은 단어는 아마 heart 일 것이다. 비록 이것이 영어어휘중 가장 흔히 쓰여지는 단어중 하나이긴 하지만 Hawthorne은 여기에 가장 이색적 자질을 입히고 기분 좋은 애수의 표피밑에 흔히 가려져 있는 밑없는 심연을 대담하게 폭로하고 있다.

heart의 본질과 그 주요 상징들에 관한 Hawthorne의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우리는 이미 적지않은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친숙하면서도 신비로운 정경의 관문에 접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관찰과 그 모든 함축성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비록 모든 양상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이 사실이나 Hawthorne의 heart에서 가장 현저한 특성은 그것이 비상하게 어둡다는 것인데, 너무나 어둡고 음산해서 작가 자신마저 여러번 그 사실을 유감으로 여겼고 기회있을 때 마다 그것을 밝게 하려고 애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는 그 일에 성공할 수 없었으므로 heart는 어쩔 수 없이 짙은 암흑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Twice-Told Tales*에의 서문에서 그는 그의 작품에 대한 솔직한 비평을 피력하고 있다.

3) Harry Levin, *The Power of Blackness* (New York,1958), p.29.

They have the pale tint of flowers that blossomed in too retired a shade--the coolness of a meditative habit which diffuses itself through the feeling and observation of every sketch. Instead of passion, there is sentiment; and even in what purports to be pictures of actual life we have allegory, not always so warmly dressed in its habiliments of flesh and blood as to be taken into the reader's mind without a shiver. Whether from lack of power, or an unconquerable reserve, the author's touches have often an effect of tameness; the merriest man can hardly contrive to laugh at his broadest humor; the tenderest woman, one would suppose, will hardly shed warm tears at his deepest pathos. The book, if you would see anything in it, requires to be read in the clear, brown, twilight atmosphere in which it was written; if opened in the sunshine, it is apt to look exceedingly like a volume of blank pages.⁴⁾

르네쌍스의 낙관론의 와중에서 Elizabeth 조 비극이 대두하여 인간의 약점과 위대성이 공존하는 암흑의 광대한 지역을 발굴하는것을 목격하며 우리는 놀란다. 인간의 도덕의식이 보다 맑은 현시를 받기 위해 각성하는듯 했던 종교개혁기에 Milton과 동시대의 작가들이 우리가 운명의 주인이 아니며 어둠의 권세에 시험을 받아야 하고 수치의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공언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당혹한다. Hawthorne의 4편의 장편소설과 몇몇 중요한 단편소설은 강력히 증언한다. 즉, 암흑의 힘은 인간사의 현시적 지배를 의미하며, 영속적인 것으로 인간생활의 모든 구석을 장악할 뿐 아니라 여러세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뻗친다.

Hawthorne의 검은 기상은⁵⁾ 우리를 특수한 심리상황에 처하게 하는 바, 그것은 신의 초자연적 은총없이 암흑과 저주의 권세를 피할 길이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전통적 종교의식과도 흡사한 것이다. Hawthorne이 비록 급진적 산업혁명기에 살았고 위대한 계몽시대 직후에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조건이 점차로 밝아지고 있다는 개념을 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의 도덕적 감수성이 총체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신조에 찬의를

4) Hawthorne, *Twice-Told Tales*, (New York, 1955) p.XV.

5) Edwin Honig는 *Dark Conceit: The Making of Allegory*(Evanston, 1959)에서 주로 Hawthorne의 풍유적 기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dark conceit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풀, 동굴, 무덤과 같은 Heart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보낸 것은 확실하다. 암흑의 조건은 인간생활에 항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보다 밝은 등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전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II. 암흑성의 정의

역사적 의식, 심리적 차원 그리고 종교적 전망에 대한 Hawthorne의 집요한 관심을 고려할 때, 그의 소설의 주제적 구성에 있어 가장 심각하고 일관적인 패턴은 암흑으로의 여행인 듯하다. 대부분의 작중인물들이 인간성의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이 여행을 감행하는데 인간성은 흔히 대낮에 눈부신 빛속에 육감적 마취상태로 인해 베일에 가리워 진다. 이것이 *The Scarlet Letter*의 서장에서 예수와 휴머로 소개된 세관의 무사 안일하고 노쇠한 직원들의 경우이다. 이 여행의 패턴은 서양문학사에 빈번히 등장하는 것으로 이 문학전통에 있어 Hawthorne의 적격성을 입증한다. *Oedipus at Colonus*에서 거만한 왕은 눈먼 후에야 비로소 참 빛을 찾으며, *Odyssey*에서는 하계로의 방문이 Odysseus의 심안을 뜨게하여 지상생활의 참뜻을 터득케하고, *Divine Comedy*에서 Dante는 지옥의 암흑하고 고뇌스러운 정경을 거쳤을 때 낙원의 환상을 보게된다. 또한 *Paradise Lost*에서는 인간저주의 근원이 지옥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의 저주와 중마전에서의 악마들의 회동에서 짜여진 검은 음모로 연결되고, *King Lear*에서 노쇠한 왕의 평이한 의식은 불합리의 검은 세력과의 돌연한 조우로 인해 극도로 억압되고 상식의 완전한 몰락후에야 비로소 영원한 빛의 질서로 각성한다. 그리고 *Faust*의 주인공 현대인은 암흑의 권세와의 영겁의 저주를 약속하는 계약을 통해 현세의 운용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

암흑은 heart의 어둠으로의 여행에 내포된 생의 단계로서 이 여행의 첫 발은 현시적 질서의 불적격성의 인식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자아의 분리로 이루어 진다. 우리는 이 과정을 *The Faerie Queene*부터 *The Pilgrim's Progress*에 이르는 영적 순례의 문학에서 거듭하여 목격한다. Hawthorne에게 다대한 영향을 준 이 두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긴박한 위기의식에 못이겨 온갖 종류의 위협과 유혹으로 가득찬 도덕적 시련의 평원으로 외로운 여행을 떠난다. 풍자적 단편 「The Celestial Railroad」에 뚜렷하게 나타나듯이 현대문명이 개발하는 구원의 성취를 위한 집단적 방법에 환멸을 느낀 Hawthorne에게 있어 고독의 길은 구원의 필수 요소였다. 그러나 고독 그 자체를 위한 고독의 개발은 Wakefield, 「The Men of Adamant」의 Digby, Ethan Brand와 Brown의 후반생의 경우에서 처럼 순례자가 소망하는 죄의식, 참회와 궁극

적 각성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로 인도하는 것으로 정죄되고 있다.

고독의 길을 따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적 결과인 자의식의 탄생이 인간에게 순간적으로 수반하는 저주의 사실을 이해하는 시발점이며, 또 동시에 절망의 극치에서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궁극적 구원의 약속도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면서도 놀라운 진실을 나타낸다. 그러나 Hawthorne문학에 있어서 고독의 문제는 그가 다룬 여타 문제들의 패턴을 따르고 있으며, 빛과 어둠의 신비적 관계상황과 연관하여 고려될때 만이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이 종교적 신비는 빛과 어둠이 절대적 실재일 뿐 아니라 너무나도 정밀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때로 불가결한 성분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통적 기독교의 이 중심적 진리에 대해 Hawthorne이 큰 관심을 두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십자가의 교훈은 세상의 죄로인해 그리스도가 가진 지옥의 어둠은 신의 정의와 사랑의 성취의 결과로 오는 부활의 빛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고로 자신을 넓은 일광의 영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고독의 길인 암흑으로의 첫발 다음에 오는 것은 당연히 이율배반의 실재에 우리가 운명적으로 얽혀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자아실현을 위해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궁극적 빛을 이루는 생존의 본질적 근원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간다는 것일 것이다.

그런고로 Hawthorne의 구원관에 의하면 암흑의 중핵에 이르기 위해 강한 죄책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곳에서 영적 연금술의 과정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인공적 안보의 빛 속에서 인간이 처해있는 본질적 암흑성을 감지할 능력을 상실한 동시대 사람들의 경박한 심성에 이 원초적 진리를 심어주기 위하여 Hawthorne은 청교도 활동의 역사로 부터 그의 소재를 얻기로 정하였다. 거기엔 죄의 의식이 지고의 문제였다. 그러나 그가 거듭 지적했듯이 이 사실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영원한 진리에 필수적인 올바른 균형을 잃는 무엇인가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 죄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한 노력에 있어 청교도들이 가진 도덕적 병폐를 진단할 때 Hawthorne의 결론은 그들이 너무 깊이, 너무 오래 어둠속에 거하여 불가항력이라고 여겨지는 이 어둠을 초월할 수 있는 빛을 향한 적절한 투쟁을 상실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유한성과 신의 무한한 자비에 근거한 구원의 개념속에 절망이 합법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Hawthorne이 인정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결코 인간성의 이성적 검토가 주장하는 자연적 비관주의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Hawthorne의 궁극적 낙관주의(자애로운 신의 섭리에 대한 그의 최종적 수용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는 한낱 값싼 수확물이 아니라 마음을 찌는 경험의 결과였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도덕적 위기상황을 취급하는 그의 수법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작중인물들은 영원한 빛의 현시를 허락받기 전에 극치의 절망으로 몰리게 된다. 그것은 Dimmesdale, Clifford Pyncheon, Donatello, Beatrice, Parson Hooper, Robin과 「Roger Melvin's Burial」의 Rouben Bourne의 경우들에서 명백하다.

그의 소설적 광경을 끊임없이 짚어가는 검은색으로 채색하는 Hawthorne의 집요한 습성을 감안할 때 작가의 심리적 구성에 한가닥의 병적 기질을 발견하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때로 기괴한 분위기 밑에 깔려 있는 건전한 자질을 식별할 줄 아는 감식력있는 독자에게 이 모든 암흑의 장면들은 빛의 탐구과정에서 각양의 예기치 않은 악의 사건들과 직면하는 Robin의 경우처럼 악에서 initiation의 강렬한 과정속의 불가결한 매개체이다. 또한 악에서의 initiation의 주제 이유는 선과 악의 신비로운 화학작용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악의 태반속에 새로운 형태의 선이 잉태되며, 그 선은 악에 지배되는 그러한 선과 같지 않으며 악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악을 긍정적인 자질로 변질 시킬 수 있다는 강한 인상을 Hawthorne의 소설은 명백하게 현시한다. 이 진리는 장터의 처형대에 선 Dimmesdale의 마지막 고백속에 극명하게 표명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의사 Chillingworth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은 그에게는 지고의 가치로 느껴지는 승리적인 치욕을 위해 준비하는데 불가결한 것이었음을 회상한다. 이리하여 그 모든 강력함과 영속성에도 불구하고 Hawthorne문학의 암흑성은 악마의 순수한 악과는 동일시 될 수 없다. 순수한 악은 구축의 자질이 전혀 없고 Chillingworth, Gaffrey Pyncheon, Westervelt와 Ethan Brand의 경우에서처럼 궁극적 변용의 전망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Hawthorne의 암흑성은 차라리 인간성의 구성요소로서의 악으로 표명될 수 있는 것으로, 어둠은 인간성 고유의 것이 아니며 허약과 무분별의 결합을 통해 강제로 부과된 상황이며 따라서 영원한 저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속죄의 참회적 과정과 신의 은총의 무한한 자비를 통해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보다 더 복된 곳으로의 승화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Dimmesdale, Hester, Pyncheon 일가의 남은 자들, Miriam과 Donatello, Robin과 Rouben Bourne의 생애에서 뚜렷이 현시되고 있다.

Ⅲ. 현시적 질서의 한계

죄, 고뇌, 불관용, 정념의 신성과 같은 Hawthorne의 위대한 주제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고독이다. 이 문제에 관해 많은 비평가⁶⁾들이 언급했고 그 대부분은 Randall Stewart와 같은 근대학자들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Hawthorne을 하나의 은자로 보는 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이 점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듯 하다. 고독에 대한 전통적인 취급은 그것이 죄스러운 행위의 우연한 범행에 의해 수동적으로 조성된 상태라는 이유로 순수한 부정적 요소로 만들고 있어 그 일반적 가설은 고독은 가능한한 피하고 공통적 인간성을 위해 예비된 본래의 고장으로 도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고독을 악과의 만남을 통해 개인에 의해 능동적으로 창조되는 심리적 발전의 한 단계로 보고싶다. 악을 그는 그의 생전의 본질적 성분으로 느끼고 이 집요하게 고착하는 악귀를 몰아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다시말해 나는 고독의 생활을 신비의 암흑한 분위기에서 선과 악의 현실이 펼쳐지는 우리 마음의 옥지를 탐험하는데 있어 시초의 단계로 보는 것이다.

창조적 예술가들(그들에겐 개인의 외로운 진리가 사회의 공동진리에 흔히 선행하는 법인데)의 관점을 역행하지 말아야 할 사회비평가들에 의해 궁극적 진리는 공동의 여론이 정상상태안에 있으며 그것은 자연 고독을 향한 어떤 활동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상기케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고독의 길은 영적 순례자의 긍정적 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 순례자는 또한 인간성의 공동의 광장에 임박한 재앙에 대한 본능적 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외곽에서 새출발을 시도하는 확고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런고로 긍정적 가치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고독에 대한 주된 정당화 작업이 구조적 사회속의 영감적 개인들에 의해 부결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구체제에서 인간은 천상의 주에 항거하여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바벨의 탑을 구축했던 것처럼 자력으로 하늘에 이르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사회의 현실적 질서의 한계에 대한 강한 의식 없이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외로운 개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보다 높은 도덕적 경지로의 모험을 위해 그들이 놓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외로운 탐구자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질서의 한계에 대한 의식과 더불어 그에게 필수적인 것은 영원한 질서에 대한 비전이다. 이것은 현실적 질서에 관련된 모든 좌절감을 쓸어버리며 이상적 기질의 온갖 갈망을 충족시켜 준다. 인간역사의 암흑한 과정이 종식될 때 인간성의 지평선에 이상적 빛이 동터 올 것을 믿는다. 비록 Hawthorne의 인물이 영원의 질서에 대한 신념을 공언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들이 지고의 조화와 질서에 대한 정확한 감

6) 주요 비평가와 저서를 열거하면 Lloyd Morris, *Rebellious Puritans: Portrait of Mr. Hawthorne* (New York, 1927), George E. Woodberry, *Nathaniel Hawthorne*과 Harry G. Fairbanks, *The Lasting Loneliness of Nathaniel Hawthorne: A Study of the Sources of Alienation in Modern Man* 이 있다.

수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더듬어야 했던 험난한 영토를 적절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Dimmesdale, Hollingsworth, Donatello, Goodman Brown, Hopper목사와 같은 Hawthorne문학의 이상주의적 인물들이 그들의 암흑한 고뇌의 활동을 통해 은밀히 간직하고 있는 완전한 조화의 내적 비전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이 불가피하게 다룰 수 밖에 없는 인간사회의 정경에 대해 우리가 얻는 외적 전망은 혼돈과 모순으로 충만하다. 이 외적 조망에 일관성과 체계성을 부여하려는 철학자들과 정치가들의 위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운명이 자연의 과정을 정복하려는 시도의 자연 산물이라는 뚜렷한 인상이 남는다.

자연의 질서와 함께 일광의 영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 논문의 가설에 의한 인공적 질서는 Hawthorne의 소설에서는 인본주의와 청교주의에 의해 주로 대표되고 있다. 내재적 가치의 엄연한 요소들을 가진 이들 이념들의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자질은 이미 검토된 바 있으며, 그 명백한 결과는 인도적 질서의 광장에 잔류하는데 대한 대안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록 영웅적 행위가 인간성에 주어진 영원의 비전에 어느정도 순응하여 착상되고 때로 수행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운명속에 파묻힌 유한성의 사실은 여하한 시간과 정력의 댓가로도 극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의 한계는 명백하다. 심각성과 순수성의 모든 순전한 자질에도 불구하고 청교주의의 진리가 지나친 열정과 불관용으로 인해 조성된 인간성의 왜곡된 견해로 인해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음으로 해서 인간의 여정은 더욱 극심한 한계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퓨리탄의 관행은 원죄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신적인 해결보다는 인간적 미봉책을 찾는듯이 보인다. 인본주의와 청교주의가 창조하는 종류의 질서와도 영원히 갈등하는 자연을 취급하는 비평에서 보듯이 자연은 개인으로 하여금 인공적 제도가 마련하는 감옥 같은 울타리를 넘어 탈주하는 것을 도우며, 때로는 그를 따뜻한 품에 안아서 자율적 활동을 갈망하는 피곤한 영혼들을 위한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Hawthorne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자연이 인간법에 의해 좀처럼 제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다 높은 법에 의해 계몽될 수도 없다는 것이며, 그럼으로 인해 Hester가 감옥으로부터 나올 때 장미덤불이 한것처럼 사회의 범법자에게 동정을 할 수는 있어도 만일 숲속 장면에서 Dimmesdale과 Hester가 한대로 지나친 신뢰를 줄 때는 엄청난 결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다.

Hawthorne의 소설기법에 Bunyan과 Spencer의 풍류가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문학사자들은 종종 언급하고 있다.⁷⁾ 그러나 영국의 대풍류 작가들과 미국의 로망스 작가 사이에 진정한 유대성을 형성하는 것은 형식적 기법의 유사성이 아니라 그들의 주제적 취급의 동질적

성격이라는 것은 흔히 간과 되고 있다.⁸⁾ 이 주제란 사회의 합리적 제도속에서의 생의 현상화는 멸망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곳에서의 생존이며, 생의 운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인간은 이곳을 육신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정신적으로 가능한한 빨리 떠나야 하며 도중에서 어떠한 역경과 난관이 닥칠지라도 견디며 신의 도시를 향해 과감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가나안의 땅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선조의 땅을 떠난 이래로 기독교 전통의 귀중한 주제중 하나는 떠남의 그것이었다. 이 주제는 애급땅으로 부터의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탈출에서 볼 수 있고 현재의 가치관에서 아무리 귀중한 것일지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는 새 가나안의 복음을 역설한 그리스도의 교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중세기 수도원의 다소 폐쇄적 제도속에서도 엿볼 수 있고 또한 John Bunyan이라는 소박한 설교자의 감옥속에서 현시된 현대 기독교인의 원형적 역정을 통해서도 구현되고 있다. Hawthorne이 어떤 전통에 의해 영향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떠남과 여행의 주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부동의 주장이다.

IV. 고독의 역학

죄의 의식과 고독의 고뇌하는 의식 사이의 유기적 상관관계에 Hawthorne이 그의 관심을 집중한 것은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력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탄의 제단앞에 끌려온 Brown처럼 악의 존재에 자의에 반하여 소개되는 인물들의 행동속에 오인할 수 없는 경향에서 발견한다. 이 경향은 자신을 동료인간과의 연계로부터 잘라내며 그들 주위에 높은 벽을 쌓아 올리며 자의적으로 자신을 그곳에 감금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향간의 개념에 반하여 고독과 지대한 필생의 관계를 지닌 사람은 고독의 감정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기에 이른다. 그는 또한 인간의 근원적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자신이 광대한 대양에 둘러쌓인 고도이며, 또한 은하의 장엄한 흐름속에 외로운 별인것을 인식하며 자의식 만이 내부와 외부의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도구임을 확인한다.

7) Henry James, "Hawthorne," *Shock of Recognition*, edited by Edmond Wilson (New York, 1943), pp. 516-517. *Liter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edited by Spiller and Others (New York, 1964), pp. 419-420.

8) Honig, *op.cit.*, pp. 101-102.

인간의 근원적 고독의 의식에 수반하는 구 사회와의 친숙한 유대감의 결렬은 예리한 고독감으로 정념의 대혼돈을 야기시킴으로써 우리는 때로 피상적이고 통념적인 관계에 대한 향수의 발작을 경험한다. Dimmesdale과 Hooper목사의 경우에서 처럼 비록 즉각적으로 그의 심약한 행위를 철회하기는 하지만 때로 절친한 동료에게 던지는 필사적인 애원의 절규는 이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낮익은 세계와의 모든 유대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를 떠난 Coverdale이 Blithedale 농장에 도착 즉시 걸린 중병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Dimmesdale의 이야기와 Hooper목사의 그것은 분명히 이들의 직업과 핵심적 상징들의 암시적 의미들을 포함하여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같이 검토해 볼 때 Dimmesdale의 고행의 과정은 비록 많은 육체적 자학의 암시로 쌓여 있지만 주로 고독의 의식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고독감은 인간의 속성에 있는 악의 의식이 주홍 글씨와 검은 베일을 통해 모든 개인주의에 범할 수 없는 벽을 구축하며 어느 타인도 들어와 그 책임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도덕적 외로움이 참회의 선한 악을 제공하는 적절한 매개체일 뿐 아니라 건실한 단련을 제공하는 효과적 분위기이기도 하다는 착상은 작품들의 무수한 장면들에 의해 충분히 지탱되고 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물의 고난과의 고독한 투쟁은 관련된 개인에게는 최선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 장면들은 기회있을 때 마다 역설하고 있다. 이 진리는 또한 Andre Gide의 *Straight is the Gate* 에서도 예리하게 지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Alissa는 그녀의 비타협적인 종교적 신념에서 천국의 문은 두 사람을 동시에 용납할 만큼 넓지 않기 때문에 Jerome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고독속에 죽어간다. Milton이나 Hawthorne과 같은 작가들, 또는 Gauguin과 Van Gogh 같은 심각한 화가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고독한 방을 마련하여 다른 어느 누구도 개발해 보지 못한 개인적 전망, 인간의 운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창조하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감행하는 방식엔 흑종의 패턴이 있는 듯하다. 나의 생각에는 예술가의 이 패턴은 Hawthorne이 그의 소설에서 구원의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포괄적 방향체시를 했을 때 매우 유익하게 포착된 듯 하다. 이 상황설정은 또한 Jesus와 Paul의 전도사업속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은 군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고로운 일이 잠정적으로 끝날 때 마다, 또한 다가오는 위기의 압박이 가중될 때 마다 고독한 장소로 물러났던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들의 약화된 영혼의 소생을 위해, 또한 그들앞에 놓인 사명에 상응하는 영적실체의 재충전을 위해 명상했던 것이다. 교구인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Dimmesdale이 그의 고독의 방을 나올 때 마다 마치 그는 세속적인 어떤 관계에도 물들지 않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유아와도 같았다고 Hawthorne이 묘사했을 때 그는 이 사제의 관행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Notwithstanding his high native gifts and scholar-like attainments, there was an air about this young minister, --an apprehensive, a startled, a half-frightened look, --as of a being who felt himself quite astray and at a loss in the pathway of human existence, and could only be at ease in some seclusion of his own. Therefore, so far as his duties would permit, he trod in the shadowy bypaths, and thus kept himself simple and childlike: coming forth, when occasion was, with a freshness, and fragrance, and dewy purity of thought, which, as many people said, affected them like the speech of an angel.⁹⁾

그런고로 고독의 암흑한 분위기에 한없이 밝게하며 새롭게 하는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Hawthorne이 진리의 고독한 탐구자의 위대한 전통을 본 받아서 확신케 된것이 분명하다. 감정의 저수지를 고갈시키며 중요한 균형 감각을 잃게하는 경향이 있음으로해서 고독에 무한정 머무는 것은 좋지 않을지 모르나 사회와의 농도깊은 교제가 있은후 이따금 고독의 방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혼의 위생을 위해 좋은 것이다. 실제로 성서의 위대한 교훈중의 하나이며 특별히 예수의 생애를 통해 예증된 것은 즉, 소위 기도라고 불리우는 신과의 올바른 영교는 고독의 분위기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며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서는 사람은 결코 자아나 신과 완전히 정직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통적 기독교인들이 신조로 하는 원죄의 교리에 따르면 구속받지 못한 생명은 이중적 삶의 댓가로 지탱되고 있는데, 이 이원적 생활에서 인간은 죄와 죽음의 사실들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마치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양 행동하고 있다.

그런고로 고독에는 정직하게 참자아를 직면할 절호의 기회가 있고, 죄와 죽음이라는 인간의 기본사실과 대결하며 유한과 무한사이의 가능한 조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최종의 해결책을 얻기위해 그의 총자산을 동원하여 투쟁하는 터가 설정된다. 고독의 고뇌를 감당함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도 희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역할과도 흡사하게 사회의 존재의의를 보존키 위해 희생되는 성격을 띠는 것이 뚜렷이 Hawthorne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이 고독한 군상들은 비록 그들의 내적세계의 자족성으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정력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또 흔히 소설전반의 플롯과 너무나

9)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and Other Tales of the Puritans*, edited by Harry Lev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0, p.67.

도 조화롭게 활동하므로 사회의 엄연한 일원일 수 밖에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사회의 이질적 성분이다. 그들의 성격과 행동은 아담과 이브가 인간최초의 죄를 범한 직후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본질적으로 숨기고 있는 생의 기본들을 공중앞에 공개하도록 면밀히 짜여져 있다. 이들 작중인물들의 영상을 일종의 상징으로 만들어 배일, 수풀, 주홍글씨와 같은 물질적 상징들과 더불어 그의 소설의 양대 지주중 하나로 형성케 하는 것이 Hawthorne의 명백한 의도였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다.

V. 절망의 원리

지능의 영역에서 입은 상처를 달래 줄 조화의 동산을 찾을 목적으로 뛰어난 정념의 평원이 실제로 악몽을 현실로 둔갑시켜 상처를 치유하기는 커녕 여러배로 늘리며 나약한 자를 열정의 소용돌이에서 몰아 파멸의 역경으로 치닫게 하는 사실을 Hawthorne의 독자들은 인식할 수 밖에 없다. Hawthorne의 작중인물들에 있어 이 충격은 너무나도 크고 압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정상적 기능의 마비현상의 시기를 지나서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밖에 부를 수 없는 도덕적 의식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다. 마지막 교두보를 제공하며 인간사회의 지평선에서 항상 빛을 발하고 있는 정념의 반란은 뼈아픈 실망감을 안겨준다. 본래 이곳은 파산한 개인이 그의 상처를 치유하며 영적 자원을 재충전하여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과의 투쟁을 재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피할 수 있는 유일의 안식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념속 영적자원의 가상적 저장소에 맹신적으로 의지하는 향수성, 낭만성의 이 습성이 궁극적 의미에서 근거가 없다는 놀라운 사실에 직면했을 때 개인에겐 오직 두가지 대안이 있을 뿐이다. 급격히 무너져 가는 도덕질서의식을 보전키 위한 노력을 전면 포기하는 것이 하나요, 여태껏 시도해 보지 않은 새도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아직 남아있는 자원에 대한 마음을 짜는 재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그 어느 쪽이든 절망의 문제와 정면대결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고로 Hawthorne의 작품에 운명완성의 촉복된 경지에 이르기 위한 일편단심적인 노력에 있어 언젠가는 절대절망의 극점에 몰리는 자들이 허다하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인간절망의 역사는 작품이야기의 큰 즐거움과 밀접하게 병행하고 있어서 Hawthorne의 작품은 일종의 절망연대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절망의 기능이 너무나도 활발하며 역동적이어서 마침내 절망 그 자체를 초월하여 비판의 분위기를 제거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각 작품에서

이 거대한 절망이 쓰는 가장의 마스크는 그 막대한 위력의 광범위한 함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My Kinsman, Major Molineux」의 Robin의 절망은 그릇되어 착념된 자신감에 끈질기게 메달리는 천진난만하고도 희망적인 기질로 인해 서서히 형성되며 이야기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형태로 응결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Minister's Black Veil」의 Hooper목사의 절망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의 약혼녀 Elizabeth 및 교회 회중과의 최초의 결별이 그를 고독의 심연으로 빠져들게 하는 고독의 절정으로부터 공동사회의 한 상징으로 수용되는 운명에 대한 고요한 체념으로 옮겨간다. 강력성의 정도의 관점으로 볼 때 「Roger Melvin's Burial」의 Rouben의 절망은 Hawthorne의 작품속에서도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거의 사건 발단으로부터 끊기 시작한 양심의 가책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이야기 끝에 이르기 까지 그 고문을 점차 증폭시켜 최종사건이 마치 절망의 자연적 귀결처럼 보이게 하고있기 때문이다.

절망이 비록 그 지속과정에서 각고의 경험을 준다 할지라도 과정의 결말에 있어 호혜적 임이 증명되는 경우를 위에서 검토한 세 사건은 표출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음의 두 경우는 유사한 정황에 있는 다른 인물들과 비해 마음의 기질이 꺾이나 허약한 주인공들에게 절망이 끼치는 영향을 예시해 주는 것으로 이 절망이 너무도 엄청난고 파괴적이어서 그들의 정념은 치유될 수 없을 만큼 분쇄되어 그들의 여생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보인다. 「Rappaccini's Daughter」의 Giovanni의 경우가 그것인데, 원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능에서 발생한 그의 절망은 그의 애인 Beatrice의 죽음을 가져오며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그의 신념의 죽음과도 맞먹는 것이다. 「Young Goodman Brown」의 Brown의 처지도 이와 마찬가지로 검은 미사에서의 마비적 경험에서 그의 신앙의 멸절이 너무나도 완전해서 그의 절망의 발자국은 흡사 죽음의 행진을 방불케 한다. Hawthorne의 4대 장편소설에서 주인공들은 모두 무자비하게 절망의 극치로 몰린다. 이 절망은 인간 정념속에 어떤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궁극적 구원을 위해 그것은 치명적 기능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떨어짐이 없이 절망의 늪에 인간이 얼마나 깊이 빠져들 수 있었는가를 이 작가는 마치 실험해 보기로 결심한 듯 하다. 이 실험을 그는 너무나 극렬하게 추구하여 그의 작중 인물중에 일반인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생명의 흔적을 남길만큼 이 시련에서 회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항간의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절망 후에도 강력한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풍부한 암시가 Hawthorne의 작품속에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의 주요 장편중에서 적어도 한 경우, 즉 *The Blithedale Romance*에 있어서 주인공 Hollingsworth와 여주인공 Zenobia가 이 야행의 최종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설의 종단에 이르기 까지 검은 절망이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The Scarlet Letter*에서 문제의 핵심은 원죄의 짐을 진 청교도 Dimmesdale의 정념이 청교도들에 의해 고안된 신권주의적인 법의 원리에 순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실행을 통해 교회에 대결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Hester가 경험하는 것은 정념의 승화로 기우는 개념을 가진 낭만적 정념으로 하여금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항했지만 Dimmesdale 사후에는 겸손하게 받아들인 원죄의 개념에 승복시킴에 있어 겪는 난점이었다.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에서 Hepzibah에 의해 거의 금욕적으로 감내되지만 Clifford에게는 그렇게도 냉혹히 작용하여 항시적으로 그것에 매몰시키고 있는 절망은 일곱 박공의 집의 경내를 벗어남의 불가능성에서 오고 있다. 이 집에서 Pyncheon대령의 탐욕스런 손에 의해 원죄가 범행되고 이 집은 또한 그 악령을 현재의 집주인 Pyncheon판사에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집은 암흑의 세력으로 강대해 저서 자연의 미덕이란 억제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순진한 처녀 Phoebe마저도 그 악영향에 감염되고 암흑의 교훈의 효력을 감지한다.

이미 지적한 바 대로 *The Blithedale Romance*에 전시된 절망이 주인공과 여주인공들로 하여금 원죄의 도전에 정면대결하는 공동의 목표로 지향케 하는 다른 소설에서처럼 인간영혼을 위한 양약이 된다는 데에는 심각한 의문이 남고 있다. Zenobia와 Hollingsworth가 품고 있는 궁극의 의도는 조화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전자의 길은 의사과학적 배일밀에 원죄를 놓음으로써 원죄의 실체를 마법적으로 제거하는 것인 반면에, 후자의 방안은 강철같은 법률로 오염된 정념을 통제하며 원죄를 늑대처럼 항상 궁지로 몰아넣는 식의 제도개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어긋나는 목표설정 결과 Zenobia를 처참한 자살로 이끌고, Hollingsworth를 끝없는 실의의 나약한 상태로 몰고가는 실리없는 절망이다. *The Marble Faun*에서 Hawthorne은 절망의 원초적 근원에 보다 깊이 파고들고 있다. 여기에서 원죄의 이미지는 Miriam의 모델의 신비로운 인격의 구현에 있는데, 비록 조심스러운 기법에 의해 운명론적인 분위기가 그 모호한 형태를 감돌고는 있으나 그의 출신은 의도적으로 암흑속에 감추어지고 있다. 육체적 실체의 파멸과 더불어 모델의 환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로 부터 절망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원죄의 육체적 표출의 제거가 원죄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외부로가 아니고 내면으로 성장하는 예리한 회한과 절망의 형태로 그 도전을 격하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위대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정념의 핵심에 접근할수록 점차로 깊어가는 암흑속에서 고독과 절망과 더불어 함께 거닐던 이 정념의 풍경속에서 절망의 영역의 중심을 향해 무한히 뻗어있는 끝없는 심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신비의 의식을 알 필요가 있다. 원하던 앎든간에 정념의 모든 탐구자들은 생에 대한 편협하고 제도화 되고 자충적인 견해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사물의 진상에 대한 통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심연을 바라 보아야 한다. 엄격히 따져서 절망이란 희망이 완전히 배제된 정신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 심리의 복잡성이 주지의 사실이며, 그것에 관한 Hawthorne의 지각이 그 단순화보다 복잡의 신호로 기울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두 종류의 절망을 보게 된다. 그 중 하나는 비록 승리할 가능성이 전무할지라도 명령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절망적인 전쟁을 묵묵히 싸워나가는 전장의 지휘관의 경우에서처럼 무희망의 전반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움의 모양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싸움에 지친 영혼이 마침내 칼을 던지고 싸움을 그치고 적으로 하여금 마음껏 짓밟도록 모든 장비를 내놓는 결정적 순간을 제시한다. 다시말해 절망의 제 2단계에서는 그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으며 절벽의 벼랑에서 있음을 의식한다.

Hawthorne의 작품은 어느 것이나 이 획기적인 순간, 즉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이 절벽에 이르며 투신 곧, 인간정념의 심연에로의 투신을 감행하는 계기가 오게 마련이다. 이 필생의 모험은 인간의 노력이 그치고 악의 검은 세력들이 난무하며 그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인간 의식의 협상적 안경을 내던지는 것과는 맞먹는다. 이 정념은 Dimmesdale과 Brown의 대립적 관화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인간문명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의식으로 인해 주로 지배되는 수풀로의 진입전에 생활과 무의식 속의 비이성적 힘에 휩쓸리는 숲에서의 엄청난 경험후의 삶의 대결이다. 내가 믿기로는 궁극적 분석에 있어 문학, 철학, 종교의 모든 위대한 작품들이 주장하는 것은 삶은 죽음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인데, 특별히 희랍과 Elizabeth 조의 것을 포함한 비극문학은 기초로부터 떨어져 나간 세계에서 우주적 균형을 성취하기 위해 죽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비극이 제시하는 정념의 심연에로의 투신이 죽음으로 종식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며, 그것은 참과 삶의 세계로의 진입의 궁극적 댓가라는 사실을 Hawthorne이 숙지하고 있음을 Dimmesdale, Zenobia, Beatrice, Rouben의 아들들의 죽음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세상을 위해 스스로의 삶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였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에 의해 묵시적으로 현시되고 있다.

VI. 고난의 연금술

회랍정교 전통의 강한 영향을 받았고 내성의 지칠줄 모르는 기질을 가지고서 Hawthorne과 마찬가지로 인간영혼의 구원에 크게 관심을 보였던 Dostoevski가 Hawthorne의 영향을 받았든가, 또는 역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Dostoevski 소설의 핵심을 이루며 충동의 원리와 함께 변용의 신비를 내포하는 고난의 개념이 또한 Hawthorne의 구원의 개념속에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두작가를 종교적 및 문학적 사상의 동일한 전통속에 놓고 싶은 충동을 나는 강하게 느낀다. Vladimir Astrov의 논문 「인간 양심의 탐구자로서의 Hawthorne과 Dostoevski」¹⁰⁾ 를 평함에 있어서 Theodore L. Gros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strov suggests that Dostoevski might have been aware of Hawthorne's writings, and he indicates the similarities of the two authors. Both men created psychological novels; both explored the human conscience; both were cut off from their "initial religious moorings"; both were filled with doubt; both were attracted to German romantic idealism and the French Socialist conceptions; both pleaded "for the rights of the spiritual, and stressed the power of the irrational and abysmal in soul and life." Astrov goes on to trace the similar treatment of guilt in *Crime and Punishment* and Hawthorne's major novels. The influence of Hawthorne on Dostoevski is highly dubious, but there is no question, as Astrov states at the conclusion to his article, that "an ideological kinship" existed between them.¹¹⁾

그들로 하여금 형태를 알 수 없고 그럼으로 인해 보다 고뇌스러운 통증을 일으켰던 정신적,

10) Vladimir Astrov, "Hawthorne and Dostoevski as Explorers of the Human Conscience," *The New England Quarterly*, XV(June, 1942), pp. 296-319.

11) Theodore L. Gross and Stanley Wertheim, *Hawthorne, Melville, Stephen Crane: A Critical Bibliography* (New York, 1971), p.34.

육체적 이상현상 외에도, 시베리아 감옥에서 강제노동을 견디어야 했던 Dostoevski와 Salem의 어두컴컴한 골방에서 스스로 부과한 옥살이를 해낼 수 밖에 없었던 Hawthorne은 고뇌의 수많은 발자국을 남겼다. 이 발자취로 인해 우리는 고통이 그들에게있어 신학적 교리로부터 얻어낸 한낱 건조한 개념이 아니라 땀과 피가 스며든 귀중한 산 경험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역동적 경험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그 근원적 성격을 보게하며 고난의 연금술에 기초한 그들의 동질적 착상, 즉 수난의 깊음속에 구원의 씨앗이 있다고 하는 착상을 형성케 하는 것이다.

아마도 부정적 수난과 긍정적 수난 사이에 가설적 구별을 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수난자는 삶에 아무런 건설적 기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고통에 대한 수동적이고 반의지적 수용자이고, 긍정적 수난자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 건전하고 필요하다는 신념아래 고통을 받기든가, 적어도 스스로를 고통의 압력 밑에 기꺼이 놓는 자이다. 그렇게 되면 도덕적 판단에 대한 Hawthorne의 계량은 분명히 보일 것이며, Hawthorne의 작품속에 몇몇 중요한 인물들을 이 가설에 의거하여 각각 알맞은 도덕적 좌표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각 group의 인물들 사이에 보다 미세한 차이를 두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대체로 Brown, Zenobia, Giovanni, Hilda를 부정적 수난자의 부류에 놓고 Dimmesdale, Hooper, Miriam, Rouben을 긍정적 수난자의 캠프에 예측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Hawthorne의 수난의 개념은 진리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저주와 멸망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 그리스도에 의해 표명된 성서의 교훈에 매우 근접한다. 두 예언적이고 역사적인 단편 「Endicott and Red Cross」와 「The Maypole of Merry Mount」를 썼던 초기 창작시기로부터 Hawthorne의 주된 과업은 마치 새작품마다 전작품 보다 더 좁은 문을 마련하여 작중인물의 참기질을 점검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 작품에서는 소수파의 권한이 몇몇 이단자에 의해 대변되고, 다음 작품에서는 수난의 뜻을 담은 최초의 처방이 Edgar와 Edith의 의식에 강요되고 있다. 심리적으로 말해서 이 긍정적 고통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왜곡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경향을 발동시킨 원죄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운명의 손에서 그가 받은 모든 아픔과 쓰라림이 필멸의 인간에게 주어진 실의에서 비롯된 응보적 성격의 공정한 판결인 것을 수난자는 자인한다.

사회 전체, 심지어는 전인류에 마땅히 속해야 할 죄가를 위해 개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과 신간의 근본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상죄를 떠맡으려고 신의 아들이 그 세상에 왔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중심사상과 맥을 같이한다.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암시성은

Dimmesdale의 죽음에 관한 여러 해석법중 하나에서 매우 뚜렷한데, 이것은 감수성이 예언성과 통찰력에 뛰어난 인사들에 의해 표명된 해석이다.

It is singular, nevertheless, that certain persons, who were spectators of the whole scene and professed never once to have removed their eyes from the Reverend Mr. Dimmesdale, denied that there was any mark whatever on his breast, more than on a newborn infant's. Neither by their report, had his dying words acknowledged, nor even remotely implied, any, the slightest connection, on his part, with the guilt for which Hester Prynne had so long worn the scarlet letter. According to these highly respectable witnesses, the minister, conscious that he was dying-conscious, also, that the reverence of the multitude placed him already among saints and angels-had desired, by yielding up his breath in the arms of that fallen woman, to express to the world how utterly nugatory is the choicest of man's own righteousness. After exhausting life in his efforts for mankind's spiritual good, he had made the manner of his death a parable, in order to impress on his admirers the mighty and mournful lesson that, in the view of Infinite Purity, we are sinners all like. It was to teach them that the holiest among us has but attained so far above his fellows as to discern more utterly the phantom of human merit which would look aspiringly upward.¹²⁾

이 사실은 또한 Hooper목사가 입는 검은 면사포에서도 암시되고 있는데 이 상징적 행동은 Melville의 Billy Budd와 Hemingway의 Santiago와 같은 문학적 고전의 수많은 불멸의 인물의 모형이었던 예수의 생애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동기에서 발단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기독교 교리의 중핵이며 예수의 전도 활동의 초점을 이루는 것은 성서의 주요 신조들과 신학적 저서들이 증명하듯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Hawthorne의 종교적 관점의 진수는 그가 정념의 옥지로의 야행을 중시하는 작중인물들을 감보리 산상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고독한 개인의 폐쇄적 골방으로의 무기력한 후퇴와 수치와 죽음을 거쳐 우주적 형제애의 넓은 들로 나아가는 용기있는

12)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and Other Tales of the Puritans*, p.257.

전진사이에서 엄청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사탄의 음험한 인상, 지옥불의 격렬함, 악의 보복적 위력에 관한 모든 견해도 불구하고 Hawthorne의 지옥의 개념은 광범위하게 진술되지 않았고, 작품에 있어서의 묘사도 Dante나 Milton 혹은 Bunyan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빈약하다. 그는 비록 그의 낭만적 열정이 사사로 운 천국을 만들어 내긴 하였으나 계몽시대의 여전히 활발한 영향이 지옥의 생생한 그림을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영원히 말살해 버린 시대에 태어났다. 그의 소설의 가장 확실한 청사진으로 그가 설정했다고 내가 믿는 야행의 험난한 길을 더듬어 볼 때, 확실한 것은 이 역정이 성자의 구속적 과정에서 처럼 죄의 궁극적 심판이 이루어 지며 새로운 삶의 진정한 시발이 행해지는 지옥으로의 방문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 순례자들을 위해 Hawthorne이 구상한 지옥의 정확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성의 타락상태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 인식 때문에 작중인물들이 겪어야 했던 절망의 깊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성의 부패는 신과 인간, 육신과 영혼, 지능과 정감, 개인과 사회사이의 모든 갈등, 또한 이들을 화해 시키는데 대한 절망을 잉태하기 때문이다. 인간 생존의 이 균형적 균열은 Hawthorne의 눈에 지옥의 원색적 분위기, 칠흙같은 어두움, 즉 그 속에서는 자력적 인간성의 유대감이나 불가지한 존재와의 동정적 영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으로 비쳐진 것을 창출한다.

모든 영적행위가 스스로를 부인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Dimmesdale이 빠졌을 때 작가의 솔직한 견해는 곧, 이 절망의 시간에 가장 미세한 조화의 감정이라도 줄 수 있는 유일한 매체는 수난의 치열함이며, 이것 만이 악몽적 관용과 무실재의 대혼동으로 충만한 인생에 있어 유일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To the untrue man, the whole universe is false, --it is impalpable, --it sinks to nothing within his grasp. And he himself, in so far as he shows himself in a false light, become a shadow, or, indeed, ceases to exist. The only truth, that continued to give Mr. Dimmesdale a real existence on this earth, was the anguish in his inmost soul, and the undissembled expression of it in his aspect. Had he once found power to smile, and wear a face of gayety, there would have been no such man!¹³⁾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의 의식에서 오는 정직한 수난이 불가능한 희망이 근거할 수 있는 유일

13) *Ibid.*, p.142.

한 희망을 형성한다고 규정하는 명제는 Hawthorne의 대부분의 소설에 적용된다. 예를들어 이 명제를 New England로의 Robin의 야밤행각에 맞출 수 있는데, 그곳에서 극도의 당혹으로 인한 그의 수난은 유일한 순수현실이 되어 두 상반된 지주를 조화시키는 가능한 길을 암시해 주는 두 얼굴의 사부에게로 그를 안내하고 있다. 이 가설은 또한 죄 지향성의 인간의 본질로 인해 새롭게 터져나온 상처가 인간 수난의 존재와 의의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인간생활에 눈뜨게 하는 죄로 채색된 Donatello의 순진한 모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 어

수난의 연금술이 갈등의 극단적 절망을 조화의 순수한 희망으로 변질시키는 정념을 대표하는 것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첫 영상은 용광로이다. 뉘우침의 부족으로 소망하는 변화를 달성하지 못한 「Ethan Brand」나 「The Birthmark」같은 작품에서 이 이미지가 축자적으로 사용된 적도 간혹 있었으나, 그것은 흔히 대규모의 함축된 영상이 되었으며 이것이 그렇게도 크고 알맞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소설의 모든 구조의 기본 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패턴들은 변함없이 그 중앙에 거대한 용광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속으로 주인공은 가차없이 떠 밀려지고 그곳에서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의 변화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아마도 Hawthorne에게 있어 수난의 연금술을 내포하는 드라마속에 핵심어가 있다면 그것은 통회일 것이다. 통회는 단순한 회한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전자는 인간의 유한성과 신의 완전성사이의 근본적 갈등에 대한 무조건의 수용인데 반하여, 후자는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무한한 능력으로부터의 잠정적 후퇴를 의미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의 소설에서 극화된 자연적 결과는 회한은 신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성을 완성하여 스스로를 정화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행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반해, 통회는 신의 섭리에 자신의 아성을 완전히 위탁하는 신적 자세를 조성하는 순수한 회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질적이고도 상반적이며, 비동정적 요소들이 통회를 통해 인간 정념의 광장으로부터 제거될 때 까지 타락한 인간성에 변용의 여명이 찾아올 수 있기 위해 신의 은총은 작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Hawthorne에 있어서 구원의 개념에서 통회는 참회의 자세를 완성키 위해 공중의 고백과 직결되는데, 이 제스처는 신적 개입에 선행하는 인간성의 궁극적 형태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Dark Conceit: *The Making of Allegory*(Evanston,1959)
- Darrel Able 「Hawthorne's Dimmesdale: Fugitive from Wrath, *Nineteenth-Century Fiction*, XI (Sept., 1956)
- Harry Levin, *The Power of Blackness* (New York, 1958)
- Hawthorne, *Twice-Told Tales*, (New York, 1955)
- The Scarlet Letter and Other Tales of the Puritans*, edited by Harry Lev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0
- The Scarlet Letter and Other Tales of the Puritans*
- Henry James, "Hawthorne," *Shock of Recognition*, edited by Edmond Wilson (New York, 1943)
- Lloyd Morris, *Rebellious Puritans: Portrait of Mr. Hawthorne* (New York, 1927)
- Rudolphe Von Abele 「*The Scarlet Letter: A Reading*," *Accent*, XI (Autumn,1951)
- Theodore L. Gross and Stanley Wertheim, *Hawthorne, Melville, Stephen Crane: A Critical Bibliography* (New York, 1971)
- Vladmir Astrov, "Hawthorne and Dostoevski as Explorers of the Human Conscience," *The New England Quarterly*, XV(June, 1942)

ABSTRACT

Dynamics of Solitude and Despair
– Anatomy of Darkness in Hawthorne's Works –

Kim, Young Chul

This thesis deals with the function of the darkness, which forms the nucleus of Hawthorne's work, and also purposes to examine the light which this darkness sheds on the human reality. First, I tried to define the meaning of this darkness in conjunction with the concept of daylight, and as two of the major elements of the darkness, I focussed on solitude and despair. And I essayed to prove that it is indispensable for this thesis to illuminate the limit of the temporal order. And then through the three stages of spiritual phenomena, I argued for the necessity of undertaking a journey into the region of darkness for the sake of human salvation, which is the theme of this thesis. They are the dynamics of solitude, the principle of despair, and the alchemy of suffering. All these stages represent the mysterious function of the human heart, and contain the paradoxical truth that the darker is the atmosphere, the closer we come to the secret of the light. Accordingly, I called this truth a dynamics of solitude and despair.